

2019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제2외국어/한문)

한문 I 정답

1	③	2	③	3	⑤	4	①	5	②
6	①	7	①	8	①	9	②	10	①
11	④	12	③	13	⑤	14	④	15	②
16	④	17	①	18	⑤	19	③	20	①
21	④	22	⑤	23	③	24	②	25	⑤
26	④	27	⑤	28	③	29	②	30	③

해 설

1.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짜다’를 뜻하는 ‘織’을 찾는다.

2.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한자는 ‘어두울(昏)’이다.

3.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ㄱ. 참－거짓, ㄴ. 경사－조사, ㄷ. 가운데, ㄹ. 잡자다

4.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파천황은 ‘천황(혼돈의 시대)을 깨뜨림.’이라는 뜻으로,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냄을 이르는 말이다.

5.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가로 열쇠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이고, 세로 열쇠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이다.

6.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온고지신은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앎.’이라는 뜻으로,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을 이르는 말이다.

7.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제시된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입은 있어도 말은 없음.’이라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8.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금석지감은 ‘지금과 옛날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생기는 느낌.’을 뜻하는 성어이다.

9. [출제의도]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한다.

중국어의 ‘公司’는 한국어의 ‘회사(會社)’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 미운 사람이라도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사랑스런(아끼는) 사람이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해야 한다.
- 상이 그 수고로움에 합당하면 공이 없는 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벌이 그 죄에 합당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11.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자강불식은 ‘스스로 힘써 쉬지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이르는 말이다.

12.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육속부달은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함.’이라는 뜻으로,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13.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근심은 소홀한 것에서 생기고, 화(재앙)는 세미함에서 발생한다.

14.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①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계책이 나오지 않음이 없다. ② 옷 지움에 그 몸을 보고, 이름 지움에 그 모양을 본다. ③ 배움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요, 베풀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다. ④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⑤ 의심을 품은 채 행하면 이름이 없고, 의심을 품은 채 일하면 공(보람)이 없다.

15. [출제의도]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한다.

① 들으면 병이요, 듣지 않으면 약이다. ② 진실이 없는 말은 말해서는 안 된다. ③ 알고도 하지 않음은 모르느니만 못하다. ④ 오래도록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에 이른다. ⑤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말하지 마라.

[16~17]

일정한 정도에 도달한 후에도 오히려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백척간두에서도 또 한 걸음 나아가고 태산의 정상에서도 다시 태산을 찾아,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를 미처 보지 못한 것과 같이 하라.

16.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일신유일신은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짐.’을 뜻하는 성어이다.

17.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尋(심)’은 ‘찾다’는 뜻으로 ‘探(탐)’이 정답이다.

[18~19]

맹자가 말했다. “공손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남을(백성을) 업신여기고 빼앗는 군주는(백성들이 자신의 뜻에) 오직 순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니, 어찌 공손하고 겸소할 수 있겠는가? 공손하고 겸소함을 어찌 음성이나 웃는 모습으로(꾸며서) 할 수 있겠는가?”

18.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제시문의 ‘惡(오)’는 ‘어찌’라고 풀이한다.

19.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해당 부분은 “어찌 음성이나 웃는 모습으로(꾸며서) 할 수 있겠는가?”로 풀이한다.

[20~22]

지사 이진기가 나이 75세에 증광 과거시험에서 합격했는데 진실로 세상에 드문 일이다. 초시 때 홍천의 시험 장소에 나가(시험 답안으로) 시문을 완성하고는 지팡이를 짚은 채 시험지를 들고 과거시험장에 제출하며 말했다. “팔십 늙은이가 황천으로 향하다가 길을 잘못 찾아 홍천에 와서는 답안지를 내고 갑니다.” 시험관들이 함께 크게 웃고는 말했다. “이 사람은 굴복시킬 수 없구나. (떨어뜨릴 수 없구나).”

20.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기지는 ‘경우에 따라 제치 있게 대처하는 슬기, 위트’를 뜻하는 어휘이다.

21.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22.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 ㉡, ㉢, ㉣은 모두 주체가 이진기(李震箕)이고, ㉤

은 고관(考官)이다.

[23~25]

창 앞에서 옛 책을 보고 등잔 밑에서 글의 뜻을 찾으라. 가난한 사람은 책으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책으로 인하여 귀해지며 어리석은 사람은 책을 얻어 어질어지고 어진 사람은 책으로 인하여 이로워지니 단지 책을 읽고 영화로워지는 것을 보았고 책을 읽고 실추(명예나 위신 따위를 떨어뜨리거나 잃음)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23.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해당 부분은 “창 앞에서 옛 책을 보고”로 풀이한다.

24.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을 안다.

① 주술 관계 ② 술목 관계 ③ 술보 관계 ④ 수식 관계 ⑤ 주술 관계

25.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① 천 리 길도 발아래에서 시작한다. ② 도를 들은 것이 백이면 스스로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 ③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되어야(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안다. ④ 산속의 적을 깨기는 쉽고, 마음속의 적을 깨기는 어렵다. ⑤ 오직 배우는 자가 현달하는 것을 보았고, 배우는 자가 성공하지 못함을 보지 못했다.

[26~27]

민옹은 남양 사람이다. <중략> 민옹에게 이르기를, “저는 단지 음식이 물리고 밤에는 잠을 못 자서, 이것이 병입니다.”라고 하니, 민옹은 일어나서 축하를 하는 것이었다. 내가 놀라서 말했다. “민옹께서는 어째서 축하하는 것입니까?”(민옹이) 말했다. “그대는 집이 가난한데 다행히 음식을 싫어하니 재산이 넉넉해질 것이요, 잠을 못 자면(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견하여, 운 좋게도 곱절로 사는 셈이지. 재산이 넉넉해지고 곱절로 사니, 오래 사는데다가 부유하기까지 한 것이네.”

26.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의 풀이는 ‘다만’이다.

27.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재산이 넉넉해지고 곱절로 사니, 오래 사는데다가 부유하기까지 한 것이네.)에 이유가 드러나 있다.

[28~30]

(가) 약초 캐다 문득 길을 잃었는데,/온 산봉우리 단풍잎 속이라./산승이 물을 길어 돌아가더니,/숲 끝에서 차 달이는 연기 오르네.
(나) 높은 다리 들안개 너머로 은은하게 보이는 데,/돌 많은 서편 물가에서 고기잡이배를 향해 물어보네./복사꽃 종일토록 물을 따라 흘러가니,/이 푸른 시내 어디쯤에 무릉도원이 있는가.

28. [출제의도] 한시를 읽고 풀이한다.

㉢의 풀이는 ‘(연기가) 오르다’이다.

29.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ㄴ. 운자(韻字)는 ‘裏’, ‘起’이다.
ㄹ. 해당 구절은 대구가 아니다.

30.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가) 시는 가을 깊은 산속의 경치와 산승의 물 길는 모습, 차 달이는 연기를 통해 탈속의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나) 시는 복사꽃이 시냇물 따라 흐르는 모습을 보고 도연명의 무릉도원을 떠올린 시로 아름답

운 봄날의 풍경을 이상향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